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미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아는 게 도가 아니라 실천해야 도

여기에 와서 한마음으로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뜻을 똑바로 알고 가야 되겠다는 그 신념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한데 모인 것입니다.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법과 부처님의 법이 하나여서 일체 세계적으로나 우주적으로도 오직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유스럽게 살지 못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시길 우리에게 누구나 다 오싹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싹통이라는 것은 뭐냐. 보는 것, 듣는 것, 남의 마음을 아는 것, 내가 어디서 온 줄 아는 것, 내 몸으로 오고 가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즉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속명통, 신족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평소 때에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육안으로 보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안으로 보라 이거죠. 그리고 듣는 것도 심안으로 들어라. 또 남의 마음을 아는 것도 심안으로 알아라. 또 안다 하더라도 안다 하는 말없이 알아라. 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생각해서 모든 작용을 하나씩 모두 여러분의 마음대로 천차만별로 쓰고 있습니다. 마음을 말입니다. 약하게도 쓰고 선하게도 쓰고 요량있게도 쓰고 요량없게도 쓰고 그렇게 마음대로 쓰는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마음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스럽지 못하다 이겁니다. 알면 자유스러웁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아는 사람한테 복종해야 하고 부자유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데만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안보이는 데도 우리가 있습니다. 항상 보이고 볼 때 보이는 것은 대치를 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다가오는 것은 어떻게 대치를 못해 나갑니다. 안보이는 데서 너를 죽인다 해도 대치를 못해 나가고 어떠한 막중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치를 못합니다. 될 바야 어떻게 하죠. 알아야 어떻게 하죠. 그러니 알고 있으면 모든 것을 대치하고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어디에서 어떠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미리 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항상 발버둥치고 어떠한 일이 생기면 그냥 팔딱팔딱 뛰고 속이 상해서

발자국 짊어지고 오지않듯
삼세가 모두 공했으니
찰나찰나 화해 돌아가는
이 뜻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팔팔 뛰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지 않게 살려면 좀 마음이 커지고 좀더 지혜가 생겨야만 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싹통이라고 하는 것

이 이 집입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는 이 몸통이를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몸통이를 종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시자라고 합니다. 즉 심부름꾼이죠.

기독교에서는 주님의 심부름꾼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없고는 부처님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있기 때문에 모두 상대가 있고 세상이 벌어졌고 종교가 생겼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히 아시고 가야만 한 발이라도 헛닫지 않고 간다 이 말입니다.

오싹통도 도가 아니라 했습니다. 아는 것, 보는 것, 이런 것을 능란하게 보고 알고 이래도 이견 도가 아니니라. 그건 왜냐하면 그 많은 걸 안다 하더라도, 이 물이 여기 한 그릇 있다는 거를 알고 목마른 사람들더러 이 물이 여기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만 가지고는 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을 갖다 가 먹게끔 해주는 것이 실천이며 그것이 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림 · 최주현

살던 습·욕심에 꼬달려 마음 자유롭게 못써 오싹통 누구나 갖췄지만 심안으로 보아야

이 물이 여기 한 그릇 있다는 거를 알고 목마른 사람들더러 이 물이 여기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만 가지고는 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을 갖다 가 먹게끔 해주는 것이 실천이며 그것이 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데를 아는 것만이 도가 아니라 있는 걸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통이 안에서 마음이 탁 터져 나와야만 우리가 마음을 맘대로 쓸 수 있던 얘깁니다. 여기서 착과 욕심과 살던 그 습관을 놓지 못하고는 이 마음이 벗어나질 못해서 바다로 나아갈 수가 없죠 마음이.

항상 살아오던 습에 꼬달려서 말입니다. 이사를 갈 때도 이게 뭐 있어 있다 이러면 이사를 갈 때에 그 성이 있어서 못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에 그저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사람이 있어서 시간을 낼 수 있는 여건이 그냥 좋다면 그대로 이사를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자유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미신이 있어서 못간다. 손이 있어서 못간다. 신이 잘못하게 할테니까 못간다 이런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사람이 99%로 정말이지 고등동물로 태어났는데 고등동물로 태어나서 왜 그렇게 제한을 받는 게 많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한을 받는 것도 여러분의 습관 탓입니다. 습관! 또 욕심에 매달리고 인과에 매달리고 집착에 꼬달려서 그렇습니다.

집착에 꼬달리면 마음이 벗어나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가지고 사시면서 '아빠' 그러면 그냥 저절로 아무 걸림이 없이 '그래' 하고는 아빠노릇을 해줍니다. 그 얼마나 자연스러우니까. 그리고 '여보' 하면 남편노릇을 그대로 여여하

게 해줍니다. '형님' 해도 그렇고 '애야 무개야' 해도 그렇고 내 몸 하나가 화해서 나투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 활용해서 쓸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이 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도 자유스럽지가 못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지구 안에서 사는 것도 공기주머니인데 우리는 그 공기주머니 바깥을 한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몸통을 떠나서 내가 바깥으로 나와야 내 몸을 맘대로 굴릴 수 있는나라. 내 몸통 안에서 나오지 못한다면 내 몸을 자유스럽게 할 수 없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대의적으로 지구 자체가 바로 공기주머니인데 그게 버스타면 우리가 한 버스를 타고 사는데 결상 하나를 가지고 네 결상이니 내 결상

이니 하고 싸웁니다. 이게 속 넓은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네 종교 내 종교 하고 싸우고 네 거 내 거 하고 싸우고 좁게 말합니다. 요만한 거 하나를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딴지. 바로 내 마음이 활달하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이 버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버스타면서만 잘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아야만이 일체제불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일체제불의 마음과 통신이 되느니라. 오로지 내 마음속에 근본 자체가 바로 일체제불의 통신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만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다고?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러나 기독교나 가톨릭교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랬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혜를 넓혀서 하나로 돌아가는 진리를 참구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과거, 미래, 현재 삼세가 하나로 그냥 끊임없이 공해서 돌아가고 일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찌하고 없고 내일도 없고 오늘도 없는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실 때에 발자국을 하나하나 때어놓으실 때 때어놓은 발자국 짊어지고 오셨습니까? 한발 때어놓으면 한발 없애지고 한발 때어놓으면 한발 없애지고, 이거를 보면 이거 없애지고 저거를 들으면 저거 없애지고.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또 만나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모두가 공했던 얘깁니다.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 이런 뜻입니다.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 이 뜻을 우리가 원만히 지혜롭게 찰나찰나 섭섭지 않게 대처를 해나갈 수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추앙을 받게 되죠. 그건 왜냐. 이 사람 마음이 그쪽 마음하고도 통하니까요.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서 이 마음이 통하는 것을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게 강도 견내고 미국도 가고 우주도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고 오고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는 것도 아는 것도 전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현혹시켜서는 아니됩니다. 근본적으로 자기 근본을 알아서 스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년·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년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꼭 알아야 할

대체의학과 음양침술 특별강습회

대체의학을 알면 인류는 각종 성인병과 불치병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대체의학은 몸 안에 자연 치유력을 강화시켜 어떤 질병이라도 5~15일이면 효과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강사 이상문
■저서
음양감시보감/ 발파로 물파로/ 세계를 이끌어갈 한국·한국인

특강요지 대체의학이란 무엇인가?
민병이 오는 원인과 예방법
기의 실체와 음양순행의 원리
병 증상은 수십가지로 나타나도 원인은 두가지 뿐이다.

음양침술이란 무엇인가?

(저자가 37년간 응용한 비법입니다.)

음양침술은 우리 인체의 365혈을 대표로 7혈만 응용합니다. 예를 들면 두통, 편두통, 견비통, 요통, 팔, 다리, 손목, 발목, 좌골 신경통, 관절염, 소화불량, 가슴이 답답한 증세, 급제 등으로 고통이 있을 때, 1~2월만 침을 놓으면 1~3분 이내에 신기한 정도로 효과가 나는 것이 음양침술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음양침술에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다음과 같은 3대 증상을 알게 됩니다.
- ▶첫째: 남자들의 소화불량으로 가스가 차고 피로가 많이 오는 증상 등등
 - ▶둘째: 여자들의 소화불량, 히스테리, 불면증, 피로권태, 얼굴기미 등등
 - ▶셋째: 침이나 뜸이나 약으로도 치료가 안되는 증상 등등
- 음양침술은 간단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5시간만 강습을 받으면 가족은 물론이요. 이웃을 위하여도 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상식적으로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 대체의학과 음양침술은 범 국민적 차원에 보급하기 위하여 매주 토요일 오후 1시~6시까지 특별 강습회를 갖습니다.
- 참석하신 분은 전화로 미리 예약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호선 전철 신대방역에 하차하시고 번 줄로 나오셔서 47리를 건너면 신림 4동 피골소가 있습니다. 피골소 건물 끼고 골목안 50m 정도 들어오셔서 (음양사) 건물이 있는 건물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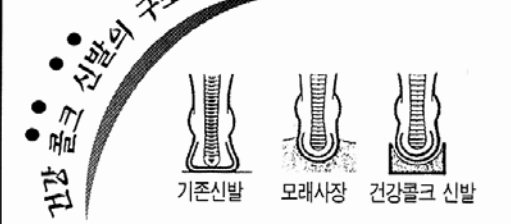
음양사 서울시 관악구 신림4동 500-1 (201호)
문의처: 02)861-5851~2 / FAX: 02)861-5852

수행자를 위한 건강 코르크 수제화신발 "군행"

스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스님전용신발 "만행"

길없는 길위에 서 있는 수행자들만을 위한 전용신발 - 군행만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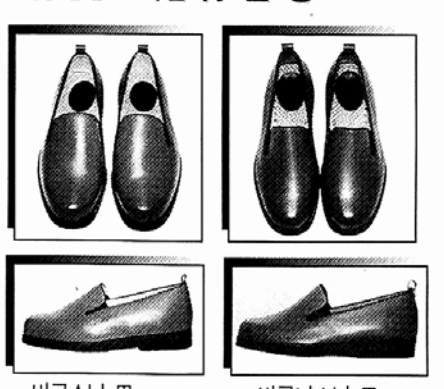


◆구조: 反射原理(반사원리)로 만들어 졌습니다.

사람의 발바닥과 발에는 63곳의 반사점(경혈)이 (피츠제너럴 드반사이론)악식(건강법) 있습니다. 이 반사구에 적당한 미질이 가하여 질때 집중된 말초신경의 에너지 순환작용을 활성화 시켜 질병은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가장 탁월한 예방의학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신발 만행은 발의 반사구를 골고루 밀착 자극하여 주는 인체 공학의 설계와 천연 코르크의 뛰어난 특성과 최고급 피혁이 상위의 체를 이루어 신고 걷는 사람의 체중과 적당한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기능: 循環原理(순환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체에는 혈관의 중핵 무진으로 뻗어 있고 이 혈관을 크게 나누면 동맥·정맥·모세혈관의 3가지로 구분합니다. 동맥은 영양과 산소를 나르고 정맥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나르고 모세혈관은 동맥이 운반해 온 것을 신체 구성구성의 세포로 건네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정맥으로 나릅니다. 이



·비구스님용 ·회색, 흑색
·비구스님용 ·회색, 흑색

는 기관의 부위가 불균형하면 순환기능이 반드시 불량 현상을 일으켜 말초신경 및 지구인력의 작용에 의하여 노폐물(이산화탄소)이 무릎 위 10cm까지 고이게 됩니다. 그때 발의 반사구를 적절히 비벼주거나 자극을 가하면 신장등의 배설기관에 의하여 쌓여있던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어 집니다.

건강신발 군행의 특징
1. 구두안쪽의 특수 안창은 천연코르크로 만들어졌습니다.
2. 건강신발은 바닥안창이 발바닥 굴곡 그대로 설계되었습니다.
3. 운동부족으로 인한 평발예방, 관절과 디스크 보호,
4. 신장기능개선

구입문의 0342)742-0296, 742-0297
군행대표 박동진 합장